

論介의 投身處 晉州 義巖 기록의 재검토

김 세 호*·신 재 열**

- I. 머리말
- II. 논개의 투신처 축석루의 벼랑 기록
- III. 의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 IV. 논개와 의암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晉州 義巖은 礪石樓 南江 변에 자리한 바위이다. 壬辰倭亂 당시 論介가 倭將을 끌어안고 투신한 공간으로 유명하다. 논개의 설화는 의암과 함께 변주를 거듭하며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柳夢寅은 『於于野談』에서 논개의 죽음을 처음 기록했고 그 장소를 의암이 아닌 축석루 아래 절벽으로 지목했다. 유몽인의 기록은 한편에서 꾸준히 인용되었고 의암 기록의 일면을 장식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논개의 투신처와 관련한 각각의 기록 양상을 조명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논개의 설화가 변화를 거듭한 과정에는 의암의 지형적 특징이 일정

*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 조교수, 제1저자 / shils@naver.com

** 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 교신저자 / jshin@gnu.ac.kr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인들이 의암을 마주하며 논개의 고사가 실현 가능한 사건인지 고뇌한 결과의 방증이다. 왜장을 의암에 올리기 위해 논개의 유혹을 가미했고 물에 빠진 이후에는 살아날 수 없는 장치를 추가했다. 이러한 내용은 변화를 거듭하였으니 의암의 설화가 공간적 배경과 결부되어 발전하였음을 돌아보게 한다. 아울러 만약 의암이 실재한 사건이라면 그 장소는 절벽일 가능성이 보다 농후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설화로 전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공간과 결부되어 문헌 기록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이하고자 작성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일부 의암의 진실은 문헌을 통해 고증하는 데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암 사건의 현실적 가능성과 글자의 각자 시기 검증 등은 다른 학문 분야와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 다양한 학계의 참여를 통해 이상의 결과가 진주 의암의 진실에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柳夢寅, 義妓巖, 晉州城, 羸石樓, 毛谷村六助

I. 머리말

晉州 義巖은 矗石樓 南江 변에 자리한 바위이다. 1593년(선조 26) 제 2차 진주성전투 당시 왜군이 진주성을 함락하자 論介(?~1593)가 倭將을 끌어안고 투신한 곳으로 유명하다. 壬辰倭亂 이후 후대 사람들은 이 바위를 통해 논개의 충절을 기억했고 오늘날에도 축석루와 더불어 진주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회자한다. 이러한 위상에 의거하여 의암의 역사성 및 논개 관련 설화 등에 주목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도출되었다.¹⁾

기존의 연구성과를 보면, 논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진주성과 의암 등의 경우를 논의한 사례도 확인된다. 다만 연구의 여건상 역사문화의 고증과 설화적 측면에서 스토리에 주목한 결과가 주를 이루는 것 같다. 반면, 기존에 알려진 지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내용들은 다소 모멸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사료에 입각하여 이를 분석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니 다른 시각에서 돌아보는 작업도 의미가 없지 않다.

-
- 1) 김덕환, 「璞園 鄭顯爽의 생애 고증 연구」, 『남명학연구』 77, 경남문화연구원, 2023; 박정애, 「조선 후기 진주성의 표상경관과 시각적 재현 양상: 축석루와 대사지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5(2),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23; 이연복, 「의암별제 제례악의 형성 방법 연구」, 『무형유산』 13, 국립무형유산원, 2022; 강민주·송미숙, 「의암별제 형성 및 과제」, 『한국예술문화연구』 1, 한국예술문화학회, 2021; 문순희, 「일제강점기 기녀 관련 사당의 역할과 의미: 義妓 論介와 貞女 春香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84, 중앙어문학회, 2020; 이화영, 『논개 담론의 전승과 재현 양상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하혜경·김한배·조윤승, 「장소기억에 나타난 진주성(晉州城)의 경관이미지 변화: 문헌분석 및 개인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경관학회지』 10(2), 한국경관학회, 2018; 오수열, 「의병장 최경희 장군의 생애와 의부인(義夫人) 주논개에 관한 소고(小考)」,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10(1),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6; 하강진, 「다산 정약용의 시문학 공간으로서 진주(晉州)」, 『영주어문학회지』 27, 영주어문학회, 2014; 양지선·강인숙, 「문헌자료를 통해 본 진주기생의 활동양상」,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대한무용학회, 2013; 양지선·김미숙, 「의암별제의 특성 연구」, 『한국무용연구』 28(2), 한국무용연구학회, 2010; 하강진, 「진주 축석루 제영시의 제재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50, 한국문학회, 2008; 박노자, 「의기(義妓) 논개 전승-전쟁, 도덕, 여성」,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박기용,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 등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진주 논개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의암의 공간을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논개가 의암에서 투신한 기록을 보면, 오늘날 의암이 아닌 절벽을 지칭한 사례가 몇몇 확인된다. 이러한 기록이 지닌 의미는 무엇이고, 의암의 기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개되었는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논개 및 의암 관련 몇몇 사항을 주제별로 나누어 각각에 따른 논의사항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진주 의암을 다시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I. 논개의 투신처 축석루의 벼랑 기록

논개가 순국한 의암의 존재는 吳斗寅의 기록에 의해 공인되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오두인은 1651년(효종 2) 진주성을 방문해 의암의 일을 기록하고 이를 「義巖記」로 정리한 적이 있다. 이때 축석루 아래 남강가에 峭巖이 곧장 물속으로 들어가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였다고 하여 의암의 지세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후대 사람들이 논개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의암 두 글자를 새기고 그 일을 정려했음을 기록했다.²⁾

다만 주지하다시피, 논개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은 柳夢寅(1559~1623)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되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이후 三道巡按御使에 임명되어 삼남 각지를 편력했거니와 피해 실정을 조사하고 유가족을 위무하는 과정에서 이를 채록한 것이라 하였다.³⁾ 유몽인이 논개의 단서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지만 의암의 지세를 기록한 대목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모두가 유몽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전하였음에도 과연 오두인이 지칭한 곳이 오늘날의 의암을 가리킨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우선, 당대 사람들이 보았던 유몽인의 논개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2) 吳斗寅, 『陽谷集』 권3, 「義巖記」.

3) 姜大敏, 「論介의 생애와 역사적 의미」, 『論介 事蹟 研究』, 1996, 21~22쪽.

같다.

논개는 진주 官妓이다. 萬曆 癸巳年(1593)에 金千鎰이 倡義한 군사가 진주로 들어가 왜에 항전했다. 성이 함락되고 군사들이 무너져 백성들이 모두 죽을 때에, 논개는 화려하게 단장한 채 예쁘게 차려입고 축석루 아래 초암의 위에 섰다. 그 아래는 만 길로 곧장 강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여러 왜군들이 보고 기뻐하였으나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홀로 어떤 왜군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자 논개가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왜장은 유혹에 이끌렸고 논개는 마침내 그 왜장을 끌어안고 곧장 못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⁴⁾

鄭栻(1664~1719)이 「義巖碑記」에 인용한 유몽인의 『於野談』에 수록된 논개 기사 일부이다. 정식이 옮겨적었다고 하지만 유몽인의 기록이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보아 다시 전재했다.⁵⁾ 유몽인은 진주성이 함락되자 논개가 예쁘게 차려입고 축석루 아래 초암의 위에 섰다고 하였고 그 아래는 만 길로 곧장 강물로 들어간다고 지세를 묘사했다.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논개 이야기의 전형이다.

이상의 기록은 지금의 의암과 견주면 다소 의문을 자아낸다. 유몽인은 초암 아래로 높이가 만 길이라 적시했다. 조선시대 만 길을 들어 비유한 사례를 보면, 萬丈峰 등과 같이 석벽을 지칭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혹자는 이것이 물의 깊이를 묘사한 것은 아닌지 반문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만 길을 취한 기록을 돌아보면, 바닷물에 대입한 사례는 보이지만 강물을 지칭한 경우는 흔치 않다.⁶⁾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4) 鄭栻, 『明庵集』 권4, 「義巖碑記」, “論介者, 晉州官妓也. 當萬曆癸巳之歲, 金千鎰倡義之士, 入於晉州以抗倭, 及城陷軍散, 人民俱死. 論介凝粧靚服, 立于巖石樓下, 峭巖之上, 其下萬丈, 直入江心. 羣倭見而悅之, 莫敢近, 獨一倭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以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倭, 直投于潭俱死.”

5) 오늘날 『어우야담』의 이본이 다수 전하고 그중 1964년 柳濟漢이 정리한 만종재본이 선본으로 평가된다. 다만, 논개의 기사는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6) 沈義는 漢나라 應璩의 百一詩를 본받아 지은 시에서 바닷물의 깊이를 만 길로 묘사했다. 반면 李殷相은 축석과 남강을 대비해 그 수심을 백 척으로 그려냈다. (沈義, 『大觀齋亂稿』 권1, 「百一詩, 擬應休璩」, “荷擔到海口, 海水深萬丈”; 李殷相, 『東里集』 권9, 「別李周卿[文雄]」, “巖石樓高高萬丈, 南江水深深百尺.”)

은 모른다는 말은 水深에 인식한 당대의 인식을 반영한 속담이다.

결국 정식은 유몽인의 글을 받아썼지만 의암이 따로 실재하며 이 기록은 문면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의암을 보지 못한 이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李元培(1745~1802)의 기록은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明庵(정식)이 다시 진주 기생 의암의 일로 유적을 모아 드러내고는 스스로 비명을 지어 마침내 포정하는 데에 이르렀다. 진주가 함락되는 날, 관기로 논개라 이름한 자는 화장과 의복을 화려하게 갖추고 축석루 아래 초암의 위에 섰다. 바위는 강물로 들어가고 벽은 높이가 만 길이다. 여러 왜군들이 보고 기뻐했고 어떤 왜장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자 논개가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왜장은 유혹에 이끌렸고 논개는 마침내 그 왜장을 끌어안고 곧장 못으로 뛰어들어 함께 죽었다. 이 또한 이전에 듣지 못한 것이니 그 義烈이 넘칠하고 생기가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를 불러일으켰다.⁷⁾

1794년(정조 18) 10월, 이원배는 진주에 머무른 적이 있다. 마침 정식의 5대손 鄭炫臣이 내방했고 논개와 관련한 고사를 듣게 되었다. 이상은 정식이 『明庵集』에 기록한 논개의 일화를 바탕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사실상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기초한 것으로 절벽의 높이가 만 길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선대의 글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해한 의암의 지세를 그대로 그려낸 결과이다.

이러한 양상은 유몽인이 『어우야담』에 기록한 논개의 투신처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정식의 기록은 유몽인의 것을 그대로 전제한 결과였고 이를 받아본 문인들은 그 대상지를 오늘날 의암과 다른 장소로 수용했다.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투신한 곳이 높은 절벽이라 이해한 모습이다. 실제 이원배는 의암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는 오두인이

7) 李元培, 『龜巖集』 권15 日錄, 「[甲寅]」, “明庵又以晉妓義巖事, 採蹟闡揚, 自撰碑銘, 竟至褒旌. 壬辰之亂, 晉州城陷之日, 官妓名論介者, 盛具粧服, 立于礪石樓下峭巖之上, 巖入江心而壁高萬丈. 羣倭見而悅之, 有一倭挺然直進, 論介笑而迎之, 倭將誘而引之, 論介遂抱持其倭, 直投于江俱死. 此亦前所未聞者, 而其義烈凜凜有生氣, 令人起敬.”

의암을 직접 목도한 뒤 유몽인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적지 않은 경우와 대비된다. 유몽인의 원의는 논개가 순국한 초암을 지금의 의암이 아닌 절벽으로 지목한 것이 명확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이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尹楮(1741~1826)가 기록한 의암의 사적은 다음과 같다.

임진년 진주성이 함락될 때의 일이다. 기녀로 이름이 논개라는 자는 화려하게 단장하고 강을 굽어보는 절벽 위에 앉았다. 여러 왜군이 기뻐하며 다투어 가려 하자 기생이 말했다. “만약 너희들의 上將이 오지 않으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에 그 상장이 이를 듣고 기뻐하며 즉시 오니 바로 그와 더불어 함께 춤추다 마침내 그 허리를 끌어안고 절벽으로 굴러 죽었다. 왜군은 상장을 잃고 스스로 궤멸하여 진주가 수복되었고 축석루는 바로 그 장소이다. 누각 아래 비를 세워 그 충렬과 공적을 기록했다.⁸⁾

윤기는 1800년(정조 24) 黃山道察訪에 제수된 적이 있다. 黃山道는 지금의 梁山 지역에 설치된 驛路를 가리킨다. 윤기는 이때 영남지역 일대 명승을 유람했고 시를 지어 자신의 여정을 기념했다. 이상은 축석루를 두고 지은 시에 붙인 세주로 축석루와 논개의 고사를 기록한 내용이다.

윤기의 기록은 후술할 『여지도서』의 기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더하여 논개가 왜장과 함께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죽었다고 하였고 그 대상지가 남강을 굽어보는 축석루에 해당함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앞선 기록들과 비교해 절벽임을 더욱 분명하게 지목한 모습이다. 특히 윤기의 행적에는 직접 진주를 방문해 일대를 둘러본 과정이 선명하다. 의암을 직접 목도했음이 분명하지만 이를 거론하지 않고 축석루에 논개의 고사를 투영했다. 평생 「泮中雜詠」 등을 통해 기록과 고증을 중시했던 면모를 돌아보면 논개의 투신처를 절벽이라 지목한 사정을 간과할 수 없다.⁹⁾

8) 尹楮, 『無名子集詩稿』 책4, 「瀛石樓[樓在晉州]」, “[壬辰晉州城陷時, 妓名論介者, 盛容飾, 坐於臨江絕壁上. 羣倭悅而爭赴之, 妓曰: “若非而上將來者, 吾不從也.” 於是其上將聞之喜即來, 乃與之對舞, 遂抱其腰, 轉于絕壁而死, 倭既失上將自潰, 晉州得復, 樓卽其地也. 樓下堅碑, 記其忠烈功績.]”

이는 구한말 吳宏默(1834~1906)의 『興載撮要』에 수록된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암: 임진년 왜인이 성을 함락하자 고을 기생 가운데 논개라는 자가 화려하게 단장하고 유혹했다. 왜장이 기뻐하고 겁탈하려 하여 함께 축석루 바위 위에서 놀았다. 논개는 이에 왜장을 안고 절벽으로 몸을 던져 죽으니 그리하여 의암이라 일컫는다.¹⁰⁾

오형목은 1889년(고종 26)부터 1893년(고종 30)까지 咸安郡守를 지낸 인물이다. 이때의 일상을 『慶尙道咸安郡叢瑣錄』에 기록했고 진주를 방문해 축석루 등에 오른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은 함안군수를 마친 뒤 편찬한 『여재촬요』에 수록된 의암 관련 내용으로 소설 『壬辰錄』의 기사와 일정 부분 유사성을 지닌다.¹¹⁾ 이로 인해 일부에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에 다소 애매한 측면이 보이지만 결국 논개의 투신이 절벽에서 행해졌음을 가리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외에 해당 사건의 장소를 의암이라 지목했지만 그 묘사가 다소 의심스러운 사례도 있다. 權璉夏의 경우는 의암을 증진 벼랑으로 묘사했다.¹²⁾ 사실상 축석루를 떠받친 축석의 상단부로 기록한 모양새다. 朴致馥은 강가의 危巖이라 기록한 뒤 시를 남겼고 이때 그 시작에서 “강물만 길로 깊고 강 바위 천 장으로 곧구나”라고 하였다.¹³⁾ 과거 남강의 강물이 지금처럼 깊지 않아 의암이 높이 솟았을 수 있으나 현전하는

9) 윤기는 성균관에서 지내며 반촌 일대의 경물과 일상 등을 주제로 220수의 연작시를 남겼고 이는 조선 후기 성균관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尹愷, 『無名子集詩稿』 책2, 『泮中雜詠[二百二十首]』)

10) 『興載撮要』 권7 慶尙道, 「晉州牧」, “〈山川〉 義巖: 壬辰倭人陷城, 州妓有論介者, 盛粧以媚之, 倭將悅而狎之, 與遊礪石樓巖上, 論介乃抱倭將, 投崖而死, 故稱義巖.”

11) 『壬辰錄』 권4, “賊入城爭掠州妓美女, 有論介者, 故盛粧而媚之, 賊將悅而狎之, 與遊礪石樓巖上, 論介乃抱賊將, 投崖而死.”

12) 權璉夏, 『頤齋集』 권16, 「忠烈列傳」, “倭酋悅介, 與之狎, 介具旨酒, 與酋共往菁川江上, 坐層厓, 極其歡飲, 既酣遂抱酋投江而死.”

13) 朴致馥, 『晚醒集』 권3 詩○大東續樂府, 「論介巖」, “江水萬仞深, 江巖千丈直.”

『晉州城圖』 등과 비교하면 지금의 의암을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기록들은 논개의 투신처가 오늘날 의암과 다른 곳임을 지목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Ⅲ. 의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오두인이 기록을 통해 증언한 것처럼 이른 시기 의암에는 각자가 새겨지고 위치가 정립되며 논개의 순국처란 사실은 불변의 진리로 고착화되었다. 역사를 증명하는 각자의 존재로 바위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앞서 살펴본 기록들은 지금의 의암과 다소 어긋난 묘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어쩌면 상식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결과인지 모른다. 축석루의 지세는 진작부터 명성을 떨쳤으니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투신한 곳은 절벽일 것이라는 관념이 내재된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의암에는 다소 의문점이 존재한다. 논개가 이곳에서 왜장과 함께 순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왜장이 굳이 바위 위로 올라서야 한다. 축석루가 자리한 절벽과 달리 몸을 도약해야 하는 인위적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남강에 같이 빠져 죽어야 한다. 절벽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고 뛰어내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자아낸다. 반면, 의암은 어찌 허우적대면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의암이 강가의 바위로 굳어지며 이 두 가지 사실을 납득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으리라 짐작할 만하다.

선행연구에서 논개의 일화가 설화적으로 전승된 사실을 여럿 조명했거니와, 이러한 설화가 발전하는 데에 의암이란 바위가 모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¹⁴⁾ 논개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한 현실성의 문제이기도 하니 이를 근거로 논개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본다.

14) 선행연구는 논개 설화에 절벽과 바위가 나타나는 것은 전설에서 진실성 확보를 위한 증거 화소라고 보았다. (박기용,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 23~24쪽)

먼저 朴泰茂(1677~1726)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萬曆 계사년(1593) 6월 그믐, 적이 晉陽城을 함락했다. 성이 함락되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자 논개가 탄식하며 말했다.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그냥 죽으면 무익하니 어찌 홀로 목매어 죽는 신의를 행하겠는가!” 그리고는 화려하게 단장하고 예쁘게 차려입어 의암에 올라 거문고를 튕기며 노래했다. 적의 장수가 기뻐하며 오자 마침내 아리따게 맞이하고 더불어 춤을 추었다. 춤이 무르익자 적장을 안고 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여러 적들이 크게 놀라 구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미칠 수 없었다. 적들이 그 장수를 조상한 뒤 크게 어지럽고 달아나 깨멸되어 성이 다시 온전해졌다.¹⁵⁾

박태무는 경상우도 출신 학자로 지역의 역사에 밝았던 인물이다. 의암의 존재를 알았음이 당연하거나 「義妓傳」을 통해 논개의 죽음을 그려냈다. 앞선 시대에 유몽인의 기사를 그저 전제한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논개가 의암에 올라 거문고를 연주하며 노래한 모습을 묘사했고 왜장을 유혹하여 함께 춤을 추었다고 하였다. 이상에는 왜장이 의암에 오른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마지막에 구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더하여 죽음의 정황도 담아냈다.

박태무가 묘사한 의암의 춤은 후대에 대단한 설득력을 안겨다 준 것으로 보인다. 姜必孝는 논개가 왜장을 유혹해 의암으로 내려가 대단히 흥겹게 노래하고 춤추었다고 묘사했고, 丁若鏞도 의암에서 마주보고 춤을 추다가 춤이 무르익어갈 때 왜장을 껴안고 몸을 던졌다고 기록했다.¹⁶⁾ 의암의 평평한 바위 모양으로 인해 이러한 이야기가 실현가능하다고 공감한 것이 이유로 작용한 듯하다. 박태무를 시작으로 의암의 가무는 논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¹⁷⁾

15) 朴泰茂, 『西溪集』 권6, 「義妓傳」, “萬曆癸巳六月晦日, 賊陷晉陽城, 城陷而無復可爲者, 論介喟然曰: “國事至此, 生不如死, 然徒死無益, 豈爲溝瀆之諒哉!” 以凝粧盛服, 登義巖彈琴而謠, 魯長喜而來, 遂嫣然而迎, 與之舞, 舞將半, 抱賊投江而死, 諸賊大驚欲救之, 已無及矣. 賊喪其帥, 大亂奔潰, 城復全.”

16) 姜必孝, 『海隱遺稿』 권14, 「四遊錄[下]」; 丁若鏞, 『與猶堂全書』詩文集 권13, 「晉州義妓祠記」.

반면 이는 가공된 느낌이 없지 않았고 공식적인 기록에는 채택되지 못했다. 대신 『輿地圖書』의 기사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의암: 축석루 아래에 있다. 임진왜란에 한 기녀가 자색이 있었다. 왜군이 보고 기뻐하니 기녀가 달려가 바위 위에 섰다. 적들이 쫓아와 붙잡자 기녀가 말했다. “너희 장수를 데려오면 내가 응당 따르겠다.” 적장이 과연 와서 더럽히려 하자 기녀가 적장을 안고 물로 몸을 던져 죽었다. 후대인들이 이를 의롭게 여겨 그 둘에 의암 두 글자를 각자하였으니 기녀는 이름이 논개이다.¹⁸⁾

『여지도서』는 영조 대에 전국 각 고을에서 자료를 모아 편찬한 전국 단위 읍지이다. 조선 전기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후 편찬된 사실상 최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전기 이후로 증보된 기사들을 담아냈고 의암의 설명이 기록된 정황을 볼 수 있다. 정사에 버금가는 지역의 시각이란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여지도서』의 기사는 왜장이 바위로 올라선데다 투신의 과정이 명확해 모든 내용을 충족한 모양새다. 하지만 그 위상에 비해 이 내용은 후대에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사실상 지역에서 공인한 기사임이 분명함에도 이후 스토리는 거듭 각색을 반복했다. 논개가 도망 끝에 절의를 실현했다는 장면이 불편함을 자아낸 것인지 모른다. 아울러 이상의 기사에는 중요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 남강에 투신했다한들 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반박하지 못한다.

19세기 成海應(1760~1839)은 논개의 일화를 정리했고 새로운 장치를 추가했다.

17) 沈鎔은 의암을 주제로 지은 시의 서문에 논개가 왜장과 의암에서 마주 춤을 추다가 취기를 틈타 그 목을 끌어안고 강물로 투신했다고 하였다. (沈鎔, 『樗村遺稿』 권10, 「義巖」, “有古妓名論者, 與倭將對舞于巖上, 仍其醉酣, 乃抱其頸而自投于江.”)

18) 『輿地圖書』 慶尙道, 「晉州牧」, “<古迹> 義巖: 在矗石樓下. 壬辰倭亂, 一妓有姿色, 倭見而悅之, 妓走立巖上, 賊追執之. 妓曰: “率汝將來, 吾當從之.” 賊果來欲汚之, 妓抱賊將投水而死. 後人義之, 刻“義巖”二字于其石. 妓名論介.”

논개는 長水 기생으로 崔慶會의 첩이 되었다. 계사년 경희(최경희)가 慶尙右兵使가 되어 진주로 들어갔다. 왜군이 진주를 빠르게 공격했고 하늘 또한 큰 비가 내려 성이 무너졌다. 왜적이 달라붙어 오르자 경희는 스스로 축석의 못에 투신했다. 논개는 경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았다. 즉시 패물을 착용하고 장식하여 화려하게 단장한 뒤 강가 바위로 나아가 춤을 추어 왜적을 현혹했다. 왜장이 나아가자 논개가 비단을 구해 허리에 묶고 춤을 추다 이어 함께 못으로 떨어져 죽었다. 지금 그 바위를 일컫기를 의암이라 한다.¹⁹⁾

성해응은 박학과 고증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자신의 판단을 더해 새로운 담론을 이끌었다. 박대무가 묘사한 가무의 과정은 동일하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추가한 모습이다. 비단을 함께 묶고 춤을 추다가 투신했다는 대목이다. 논개의 죽음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왜장이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이유를 완성한 결과로 볼 만하다.

물론, 이는 앞선 기록들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임이 자명하다. 다만 박대무 등이 기록한 기사는 의암을 사건이 발발한 장소로 명시하기에 충분했지만, 이후 『여지도서』 등을 참조해도 왜장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명쾌하게 설득하지 못했다. 이와 비교하면 성해응은 왜장의 죽음에 대한 개연성을 한층 증대시켰다. 단지 신체를 끌어안고 강에 몸을 던진 것에 비해 끈을 묶었다는 더욱 납득할 만한 요소를 가미했다. 성해응과 같은 시기 徐有本 또한 비단을 묶고 춤을 춘 정황을 재현한 사실이 보인다.²⁰⁾ 왜장의 죽음에 신빙성을 더하는 중요한 과정이 보완되었음에 주목할 만하다.

논개의 죽음은 근현대에 이르러 하나의 서사로 완결되었고 왜장이 살아날 수 없는 장치는 더욱 현실적인 방법으로 추가되었다. 『東亞日報』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19)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55, 「金蟾愛香論介今玉龍岡妓」, “論介長水妓, 爲崔慶會妾. 癸巳慶會爲慶尙右兵使, 入晉州, 倭攻晉州急, 天又大雨城潰, 倭附上, 慶會自投礪石之淵. 論介聞慶會死而不憾, 卽盛粧具佩之飾, 就江上巖婆娑以眩倭, 倭酋就, 論介故要帛束腰而舞, 因俱墜淵死, 至今稱其巖曰義巖.”

20) 徐有本, 『左蘇山人集』 권8, 「晉州殉難諸臣傳」, “城陷日, 盛服婆娑於礪石樓下, 有一倭將艷其色而逼之, 乃佯與東要并舞, 因抱而投江, 後人稱其巖爲義巖云.”

론개는 날마다 장수의 아플떠나지안코 장수역시론개를떨치고는 한잔의술까지 못마시게되엇다 여기까지 장수의마음을빼아서노흔 론개는 술잔을권할때나 노래를부를때까지도 그의심중에는 비록약한몸이나마 진주성을위하여 자기의목숨을 밋치리라함이 오죽철석가터다 그러나론개의따뜻한술잔에취한장수는 론개를 조끔도의심치안헸다 하로는 론개가무슨게책을어덧는지미소를남몰래띄우고 집으로도라가서는가락지열개를 준비하여가지고 □□의안즌주석에갓섯다 장수는 갓득취한눈으로바라볼때름이지 그 외에는별다른기색이 보이지안헸다 이것을본론개는되엇다는 듯이 그의여플갓가히안즈며 그맛가운데에잇는 바위우에놀러가기를권하엿다 이말을들은장수는매우깃버하엿다 론개는준비하얏든은가락지를 손가락마다끼고 그와 그곳까지 배를저어건너가서 춤추고노래하는동안에 론개는이 기회를 노쳐서는안되겠다고 최후의결심을하고 그의 허리를 안으며 미소를띄우니 그는 론개가 자기에게반한줄만밋고 가리반기엿다 이때론개는 힘을다하여 물속으로뛰어 들어갓다 장사라는 그도 이에는꿈작할수업섯다 장수의힘이라 몇 번물위로 솟앗스나 연약한녀자의 힘으로도 최후의결심에는 엇절수업시그냥가라안고말앗다 이것이六월二十九일이엿다²¹⁾

鄭道和가 기록한 논개의 전설 가운데 투신의 과정을 적은 대목이다. 조선시대에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된 모습이다. 오늘날 논개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가락지가 등장한다. 논개가 왜장과 친분을 쌓고 마음을 얻어 가락지를 끼고 투신했다고 하였다. 장황한 스토리의 전개를 보이지만 중요한 대목은 죽음의 장면이다. 논개는 굳이 집에 가서 가락지를 챙겼으니 이는 의암의 높이를 상쇄하기 위한 스토리의 보완인 듯하다. 가락지는 왜장의 식사를 합리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상에서 밝힌 기사 외에도 왜장이 술에 취해 죽었다는 해석도 상당하다. 권연하는 논개가 맛 좋은 술을 가지고 왜장과 남강가의 층진 벼랑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왜장이 취하자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고 하였다.²²⁾ 金澤榮도 왜장이 술에 취하여 죽게 된 사실을 기록했다.²³⁾ 연희의 모습은 의암을 사건의 배경으로 제시하기 위한 단서이고, 결국 만취

21) 『東亞日報』, 「羸石樓下의 義巖」, 1932년 09월 29일 04단 01면.

22) 權璉夏, 『頤齋集』 권16, 「忠烈列傳」.

23)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2, 「義妓歌[三首]」.

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어 해엄처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암시한다. 모두 의암에서 죽었음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한 이야기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IV. 논개와 의암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이상은 의암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투신처에 따라 구별된 기사 of 양상을 조명한 결과이다. 기존에 알려진 논개의 설화가 의암이란 장소와 결부되어 생성된 가능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는 의암 및 논개와 관련한 기사의 몇몇을 취한 결과에 불과하지만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외에도 돌아볼 만한 사항들이 없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 장에서는 논개와 의암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제시한다. 역사 기록과의 대조를 통해 의암을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논개 이야기는 과연 실재한 사건인가.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논개 이야기를 보면 이에 대한 신빙성과 관련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역사에서 논개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야기되지 않았다. 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논개가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데에 일말의 진통이 존재한 것이다.

18세기 英祖 대에 慶尙左兵使 崔鎭漢은 彰烈祠에 배향된 인물들의 증직 등을 상소한 적이 있다. 이때 논개의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고 영조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상소를 보니 잘 알겠다. 당초에 구별한 것은 틀림없이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의암이 남아 있다고 하나 野談에 기록된 것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또 100여 년 전의 일을 가볍게 거론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경이 忠義를 위해 장렬하게 희생한 사람들을 드러내 장려하고자 하는 뜻이 가상하니, 廟堂으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다.”²⁴⁾

24) 『承政院日記』 英祖 2년(1726) 5월 16일, “答曰: “省疏具悉. 當初區別, 必有委折, 義

영조가 최진한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이다. 당초에 구별했다는 것은 진주성전투 당시 죽은 인물들의 은전에 차등이 있었음을 말한 것으로 이미 선대왕이 결정한 사안을 무시할 수 없다는 처사이다. 이어 영조는 의암에 대해 야담의 기록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진주성전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영조는 이에 의문을 품었지만 논개는 결국 포정되기에 이르렀다. 1740년(영조 16) 南德夏가 다시 장계를 올려 정려하면서 논개의 위상은 선양되었고 이는 역사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각인되었다.²⁵⁾

둘째, 의암이란 각자는 언제 새긴 글자인가. 이는 지금의 의암이 자리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날 의암이 있게 된 것은 모두인이 각자의 존재를 증언한 데에서 시작한다. 한편, 근현대 편찬한 『晉陽續誌』에는 鄭大隆이 새긴 글자라고 하였다. 정대룡은 鄭文孚의 아들로 그 생몰년이 모두인 이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만 같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姜必孝(1764~1848)의 기록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강가에 의기 논개의 정려가 있고 앞으로 지붕 모양 같은 蠡巖(독바위)이 물 한 가운데 솟아 있다. 계사년 6월 왜구가 성을 함락하자 창의사 김천일이 힘써 싸우다 죽고 27명의 의사가 한날 殉義했다. 논개는 비분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죽은 것과 같다 여기고 죽으면서 하나의 적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얼마 후 어떤 한 왜장이 보고 기뻐하자 논개가 짐짓 스스로 정성껏 맞이하여 점점 친압했다. 마침내 유혹해 독암으로 내려가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움이 극에 달하자 이에 적을 안고 강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庚申年(1740) 가을 병사 남덕하가 장계를 올려 특별히 정려를 명했다. 辛酉年(1741) 봄 바위 면에 의암 두 글자를 새기고 다시 “一帶長江千秋義烈” 여덟 자를 새겼다.²⁶⁾

巖雖存, 野談所記, 何可憑信? 且百餘年之事, 似難輕舉, 而卿之欲褒忠烈之意, 嘉矣. 其令廟堂, 稟處.””

25)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이화영, 『논개 담론의 전승과 재현 양상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42~43쪽)

26) 姜必孝, 『海隱遺稿』 권14, 「四遊錄[下]」, “江上有義妓論介之間, 前有蠡巖如屋帽狀

강필효는 1740년(영조 16) 남덕하가 장계를 올려 논개가 정려되고 이듬해인 1741년(영조 17) 의암 두 글자를 각자했다고 기술했다. 사실상 각자의 주체를 남덕하라 지목한 모습이다. 물론 앞선 시기인 1726년(영조 2) 최진한은 상소를 통해 의암의 각자가 있음을 증언한 적이 있다.²⁷⁾ 강필효의 착각일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평소 고증과 기록을 중시한 측면을 돌아보면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기사이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논개 각자의 마멸을 염려하는 기사가 보인다. 이러한 논란에 의거해 각자와 암석의 과학적 조사를 거쳐 그 시기를 비정할 만하다.

셋째, 일대장강 천추의열은 누가 새긴 글씨인가. 앞서 강필효의 기록에 보이지만 현재 의암의 바로 위 층진 벼랑에 이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고 그 시기는 1766년(영조 42)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앞서 강필효가 18세기에 새겨졌음을 증언한 것과 시기상 차이를 보일지언정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반면, 오늘날 이 글씨는 韓夢參의 필체라는 설이 전하니 한몽삼은 임진왜란과 가까운 시기의 인물이다. 정황상 다소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이 글씨가 한몽삼의 것이라는 설은 구한말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전환기 韓楡(1868~1911)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오른쪽 八大字는 우리 선조 適巖(한몽삼) 선생 수필로 전하지만 문헌에 고증할 만한 것이 없다. 또 그 아래 마침 崇禎三丙戌이라 적었으니 이는 우리 英宗(영조) 42년(1766)이다. 역책이 생겨난 것이 승정 45년이자 현종 3년 임인(1662년)으로 해가 떨어진 것이 104년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전한 것이 오류인가? 아니면 선생이 당일에 베끼고 후대 사람의 각자가 승정 삼갑에 있던 것인가? 또 승정삼병술 다섯 글자는 필력이 미약하고 자체는 조속하여 앞의 여덟 글자와 같이 없으니 아마도 과연 후대 사람이 첨족한 것이리라!²⁸⁾

者，峙於水中。癸巳六月倭寇陷城，倡義使金千鎰力戰死之，二十七義士一時殉義，介不勝悲憤，自度等死，死欲殲一賊，已而有一倭酋見而悅之，介故自納款，浸加昵狎，遂誘下轟巖，歌舞極歡，仍抱賊投江而死。庚申秋，兵使南德夏聞間，特命旌閭。辛酉春，刻義巖二字於巖面，又刻一帶長江千秋義烈八大字。”

27) 『承政院日記』英祖 2년(1726) 5월 16일.

28) 韓楡, 『愚山文集』 권12, 「書一帶長江千秋義烈八大字後」, “右八大字, 傳吾先祖適巖

한유는 당시 의암 가까이 새겨진 여덟 글자가 한몽삼의 글씨라는 설이 파다함을 기록했다. 한유는 한몽삼의 후손이었기에 그 의미는 더욱 간절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 글자에는 승정삼병술이라 시기를 밝혀 놓았고 이는 역사적 사실과 어긋났기에 의문을 자아냈다. 이에 한유는 다시 두 글자의 필체가 다르다며 이는 한몽삼의 글씨가 맞다는 믿음을 견지했다. 『晉陽續誌』에서 이를 취하였으니 오늘날 한몽삼의 글씨라는 설은 구한말 전하는 설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²⁹⁾ 다만 앞서 강필효의 기록을 참조하면 이 글자는 18세기에 쓰인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누구의 글씨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마지막은 논개와 함께 죽은 왜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앞선 기록을 보면, 처음 유몽인과 오두인 등은 논개가 죽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一倭’이라 기록했다. 이후 이 인물은 왜장으로 변화하고 심지어 논개의 순국은 진주성을 수복하는 결정적 행위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해당 인물은 毛谷村六助(게야무라 로쿠스케)라는 장수로 특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인지 궁금하다.³⁰⁾

게야무라 로쿠스케의 이름은 일제강점기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論介는 柳於野談이나 기타 기록에는 但히 晉州官妓라 하고 晉州傳説에는 全北 長水의 官婢로 3壯士 중 1人인 黃進씨를 隨하야 進州로 왔는데 其姓은 周씨라 한다. 그러나 晉州의 官婢인 것이 분명한 듯 하니 何故오 自來 조선의 妓案을 據하

先生手筆, 然無文獻可考, 且其下方書, 崇禎三丙戌, 則是爲我英宗四十二年也. 生易簪在崇禎四十五年, 顯宗三年壬寅, 歲之相後爲一百四年也. 然則世之所傳者謬歟, 抑先生寫之於當日, 而後人之刻在崇禎三甲歟? 且其崇禎三丙戌五字, 筆力萎弱, 字體粗俗, 與前八字不類豈果後人之添足歟?”

29) 『晉陽續誌』 권3 [任官] <古蹟>, “義巖邊石壁, 刻一帶長江千秋義烈八大字, 世傳韓鈞隱夢參所書云.”

30) 선행연구에서 ‘毛谷’이란 이름은 1934년 『每日申報』에 처음 등장하고 이후 ‘毛谷村六助’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나 그 시작은 이보다 더욱 앞선다고 하겠다. (박기용(2004), 23쪽.)

면 대개 무슨 玉, 무슨 月, 무슨 香 등이 잇고 論介와 如한 명칭이 업스며 또 慶南地方 下等階級의 女子兒名을 見하면 卽今에도 논개, 밧개, 땅개, 동넛개 등이 잇다. 그러면 論介는 즉 논개가 안인가 하는 疑가 잇다. 또 日將은 加藤某라고도 하고 毛利盛이라고도 하나 기실은 加藤清正의 部長 毛谷村六助다. 그의 상세한 사실은 역사에 기재가 別無한즉 此를 말하기 어려우나 그의 비문과 李朝 이래 吾씨의 義娘 巖詩는 그 사실을 記한 자인 고로 참고적으로 左에 기록한다.³¹⁾

靑吾라는 인물이 『개벽』에 기고한 논개 관련 기사이다. 청오는 車相瓚(1887~1946)의 필명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호를 청오라 하였고 『개벽』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청오는 먼저 논개의 인물을 고찰하고 다시 왜장이 누구인지 논의했다. 당시에 회자한 인물 가운데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특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별도의 자료가 부재해 상세한 증언은 어렵지만 참고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후대에 거듭 인용되며 하나의 사실로 굳어졌지만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하겠다.³²⁾

이상은 논개 및 의암과 관련하여 다소 파편적 기록들을 통해 검토한 결과이다. 먼저 논개의 신빙성과 관련한 문제를 돌아본다. 오늘날까지 논개의 실존 여부를 표면적으로 문제 삼은 경우는 없으니 영조의 정려가 이 사건에 확고한 믿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각자 및 왜장과 관련한 부분은 많은 논란으로 인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여전히 공인된 정보마냥 거듭 통용되는 실정이다. 역사적 진실을 구명하는 과정이 요원하다 하더라도 불확실한 정보를 일말의 검증 없이 인용하는 현실은 재고되어야 함을 돌아보게 한다.

31) 靑吾, 「南江의 落花와 金碧의 冤血」, 『개벽』 제34호, 1923년 4월 1일.

32) 19세기 오형묵은 적장의 이름을 河羅北이라 적었으나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른다. (吳宏默, 『叢瑣』 책17 銘○咸安郡, 「論介祠銘[并叙事]」: 妓名論芥, 晉陽人, 當壬辰城陷之日, 誘賊將河羅北, 飲酒於巖上, 乘賊沉醉, 抱墜于江.)

V. 맺음말

의암은 축석루 남강 변에 자리한 바위로 오늘날 논개의 순국처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반면 논개의 죽음을 처음 기록한 유몽인의 『어우야담』 등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논개의 투신처로 오늘날 전하는 의암이 아닌 축석루 아래 절벽을 지칭한 사례가 보인다. 의암의 존재가 명확하게 전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나타난 이유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당시 문인들의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한다.

논개의 설화가 변화를 거듭한 과정에는 의암의 지형적 특징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인들이 의암을 마주하며 논개의 고사가 실현 가능한 사건인지 고려했던 결과의 방증이다. 왜장을 의암에 올리기 위해 논개의 유해를 가미했고 물에 빠진 이후에는 살아날 수 없는 장치를 추가했다. 이러한 내용은 변화를 거듭하였으니 의암의 설화가 공간적 배경과 결부되어 발전하였음을 돌아보게 한다. 아울러 만약 의암이 실재한 사건이라면 그 장소는 절벽일 가능성이 보다 농후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설화로 전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공간과 결부되어 문헌 기록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작성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일부 의암의 진실은 문헌을 통해 고증하려 해도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암 사건의 현실적 가능성과 글자의 각자 시기 검증 등은 다른 학문 분야와의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 다양한 학계의 참여를 통해 이상의 결과가 진주 의암의 진실에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0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범수, 『의기논개』, 진주문화원, 1999.
- 김수업, 『논개』, 지식산업사, 2001.
-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용화노영미 옮김, 『어우야담』, 돌베개, 2006.
- 장수문화원, 『논개의 생애와 충절』, 대흥기획, 1997.
- 하강진, 『역주해 논개 삼장사 시문 총집』, 경진, 2024.
- 강민주송미숙, 「의암별제 형성 및 과제」, 『한국예술문화연구』 1, 한국예술문화학회, 2021, 47~63쪽.
- 김덕환, 「璞園 鄭顯奭의 생애 고증 연구」, 『남명학연구』 77, 경남문화연구원, 2023, 286~318쪽.
- 문순희, 「일제강점기 기녀 관련 사당의 역할과 의미: 義妓 論介와 貞女 春香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84, 중앙어문학회, 2020, 189~214쪽
- 박기용,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 169~214쪽.
- 박노자, 「의기(義妓) 논개 전승 - 전쟁, 도덕, 여성」,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229~254쪽.
- 박정애, 「조선 후기 진주성의 표상경관과 시각적 재현 양상: 축석루와 대사지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5(2),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23, 65~91쪽.
- 양지선·강인숙, 「문헌자료를 통해 본 진주기생의 활동양상」,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대한무용학회, 2013, 41~66쪽
- 양지선·김미숙, 「의암별제의 특성 연구」, 『한국무용연구』 28(2), 한국무용연구학회, 2010, 169~192쪽.
- 오수열, 「의병장 최경희 장군의 생애와 의부인(義夫人) 주논개에 관한 소고(小考)」, 『조선대학교 군사발전연구』 10(1),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6, 31~48쪽
- 이연복, 「의암별제 제례악의 형성 방법 연구」, 『무형유산』 13, 국립무형유산원, 2022, 99~128쪽.

- 이화영, 『논개 담론의 전승과 재현 양상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하강진, 「진주 축석루 제영시의 제재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50, 한국문학회, 2008, 183~229쪽.
- 하강진, 「다산 정약용의 시문학 공간으로서 진주(晉州)」, 『영주어문학회지』 27, 영주어문학회, 2014, 85~113쪽.
- 하혜경·김한배·조윤승, 「장소기억에 나타난 진주성(晉州城)의 경관이미지 변화- 문헌분석 및 개인 면담을 중심으로 -」, 『한국경관학회지』 10(2), 한국경관학회, 2018, 105~122쪽.

Abstract

A Review on Jinju(晉州) Uiam(義巖), the Place where Nongae(論介) Dropped

Kim, Se-ho
Shin, Jae-ryul

Jinju(晉州) Uiam(義巖) is a rock located along the Namgang River adjacent to Chokseokru(矗石樓). It is where Nongae(論介) hugged a Japanese general and jumped into the river together during the Imjin War(壬辰倭亂). The story of Nongae has established itself as a historical event by changing along with Uiam. On the other hand, Ryu Mong-in(柳夢寅) first recorded the death of Nongae in Eowooyadam(於于野談) and pointed to the place as a cliff below Chokseokru, not Uiam. Ryu's record has been continuously cited since then and mentioned as a vital historical record of Uiam. In this article, we tried to re-examine various historical records on Uiam and to distinguis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cord.

Th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Uiam had some influence o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narrative of Nongae. This is evidence of the past when writers faced Uiam and agonized over whether the death of Nongae was a feasible event. To make the Japanese general die in Uiam, the temptation of Nongae was added, and a device that could not survive after falling into the water was added. These contents have changed, allowing us to look back on the fact that the folktales of Uiam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spatial background. In addition, if Uiam is an actual event, the place is more likely to be a cliff.

This article is the result of writing to show that a historical event

conveyed in a folktale can be understood in various aspects through literature records in connection with space. Given this, there is an aspect that is impossible to prove the truth of some Uiam through literature. Of course, there is a possibility of solving these problems.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the Uiam case and the verification of each period of the letters can solve problems through collaboration with other academic fields. The above result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approach the truth of Jinju Uiam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academic circles.

keywords :

Ryu Mong-in(柳夢寅), Uigiam(義妓巖), Jinju Castle(晉州城),
Chokseokru(矗石樓), Kejamura Rochusuke(毛谷村六助)